

현대중국어 ‘差一點沒+VP’에 관하여

— ‘差一點沒+VP’의 의미론적 통사론적 분석

임 난 영*

<목 차>

1. 서론
2. 差一點沒₁+VP와 差一點沒₂+VP
 - 2.1 差一點+VP와 差一點沒+VP 명제적 의미의 대칭양상
 - 2.2 기존 이론들의 문제점
 - 2.3 沒₂의 잉여(冗餘/羨餘)부정부사 여부
3. 결론

1. 서론

현대중국어 구어 표현 중에 부사어 ‘差一點(沒)’¹⁾이 들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후행하는 성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긍정 의미를 나타내고 때로는 부정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差一點考上了’와 ‘差一點沒考上’를 비교해보면 전자는 아쉬운 태도를 표시하는 ‘沒考上’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즉 명제적 부정의미인 것이다. 후자는 다행스러운 태도를 표시하는 ‘考上了’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즉 명제적 긍정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差一點’은 부정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므로 이가 들어있는 문장은 명제적 부정의미가 내포되어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 동서울대학교 중국비즈니스학과 전임.

1) 현대중국어 부사 중에 ‘差一點’은 구어적 표현방식에 따라 여러 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差一點兒’, ‘差點’, ‘差點兒’ 등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모두다 부사 ‘差一點’의 同義이형태로 간주하여 동일한 부사로 취급하겠다.

있는 것이며 마침 통사적 부정부사인 ‘沒’이 후행하면 이중 부정이 일어나 결국 명제적 긍정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差一點落榜了’와 ‘差一點沒落榜’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사실상 ‘沒落榜’, 후자도 사실상 ‘沒落榜’이며 둘 다 똑같은 명제적 부정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사구조상 ‘差一點沒考上’과 ‘差一點沒落榜’는 서로 같은 구조이지만 명제적 의미가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묘사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기존 학자들에 의한 선행연구의 여러 문제점을 밝히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2. ‘差一點沒₁+VP’와 ‘差一點沒₂+VP’²⁾

2.1 ‘差一點+VP’와 ‘差一點沒+VP’ 명제적 의미의 대칭양상

朱德熙(1959)에서 ‘差一點+VP’류 문장형식과 그 의미간의 대응 관계는 주로 화자의 심리활동 ‘희망(企望)’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아래 예문을 나열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가 있었다. 즉 화자가 바라는 상황일 경우, 긍정형식 표현구조는 실제로 명제적 부정의미를 나타내고 부정형식 표현구조는 실제로 명제적 긍정의미를 나타내며 반대로 화자가 바라지 않는 상황일 경우, 긍정형 표현이든 부정형 표현이든 모두 다 명제적 부정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 1) 差一點及格了(沒及格) ≠ 差一點沒及格(及格了)

(하마터면 합격 할 뻔했네(합격 못함) ≠

2) 본고에서는 편리상 명제적 긍정의미를 나타낼 때의 ‘差一點沒’ 중 ‘沒’을 ‘沒₁’라고 표기하고, 명제적 부정의미를 나타낼 때의 ‘差一點沒’에서의 ‘沒’을 ‘沒₂’라고 표기하겠다.

하마터면 합격 못할 뻔했네(합격 함)
 差一點買着了(沒買着) ≠ 差一點沒買着(買着了)
 (하마터면 사낼 뻔했네(못 샀음) ≠
 하마터면 못 사낼 뻔했네(사냈음))
 差一點趕上了(沒赶上) ≠ 差一點沒赶上(趕上了)
 (하마터면 따라붙을 뻔했네(못 따라붙음) ≠
 하마터면 못 따라붙을 뻔했네(따라붙음))
 差一點修好了(沒修好) ≠ 差一點沒修好(修好了)
 (하마터면 수리해낼 뻔했네(수리 못함) ≠
 하마터면 수리 못할 뻔했네(수리해냈음))

[朱德熙 1980: 188]

아래 예문2)에 나와 있는 '差一點'문장의 명제적 의미와 '差一點沒₂' 문장은 둘 다 똑같은 부정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예문1)과 달리 좌우 비대칭 양상이 띄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 2) 差一點死了(沒死) = 差一點沒死了(沒死)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죽지 않음) =
 하마터면 안? 죽을 뻔했네(죽지 않음))
 差一點輸了(沒輸) = 差一點沒輸了(沒輸)
 (하마터면 질 뻔했네(지지 않음) =
 하마터면 안? 질 뻔했네(지지 않음))
 差一點打碎了(沒打碎) = 差一點沒打碎(沒打碎)
 (하마터면 깨뜨릴 뻔했네(깨드리지 않음) =
 하마터면 안? 깨뜨릴 뻔했네(깨드리지 않음))
 差一點摔一交(沒摔) = 差一點沒摔一交(沒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네(넘어지지 않음) =
 하마터면 안? 넘어질 뻔했네(넘어지지 않음))

[朱德熙 1980: 188]

우선 '差一點+VP'표현구조에서는 실제로 모두 다 명제적 부정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의미상 부정 역할을 하고 있는 부정성(否定性)³⁾ 부사라

3) 沈家煊(1987)에서 '差點兒(差一點)'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부정성(否定性) 단어이므로 부

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은 일반적으로 下限義만 부정한다는 규칙을 따르기에 ‘差一點’도 마찬가지로 의미상 뒤에 있는 VP까지 미치지 못하고 이 때 VP가 만약에 일정한 양을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差一點’은 VP보다 조금 작은 양이며 (接近VP) 그리고 VP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상 VP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非VP)(沈家煊 1998: 59, 87). 따라서 예문 1)과 2)에서 왼쪽 부분 ‘差一點’이 들어있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모두 다 명제적 부정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差一點’이 이와 같이 명제적 부정 의미를 가지는 부정성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예문 2)와 같이 이중 부정형식 ‘差一點+沒’가 나타내는 의미는 명제적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 의미라는 것이다.

‘差一點’와 ‘差一點沒₂’의 비대칭양상에 대한 연구가 일찍이 朱德熙(1959)의 ‘企望說’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또한 이 이론이 매우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도 ‘企望說’을 기반으로 하여 각자 관점에 입각하여 또 새로운 연구

정의 내부적 비대칭 규칙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즉, 일반적 상황에서는 수량 또는 정도의 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下限義를 부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下限義 또는 上限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i) 甲: 老郭有三個兒子?
(곽씨한테 아들 세 명(이나) 있어?)
乙: a. 是的, 他有四個兒子呢.
(그래, 아들 네 명 있어)
b. 不, 他有四個兒子呢.
(아니야, 아들 네 명이나 있어)

甲이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즉, “老郭에게 아들이 최소 세 명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乙a와 같이 3명이상인 4명이나 있다고 대답한 것이고, 또 하나는 “老郭에게 아들 오직 세 명만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乙b와 같이 3명만이 아니라 4명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여기서 ‘최소 세 명’은 곧바로 ‘三個의 下限義’라는 것이고, ‘오직 세 명’을 ‘三個의 上限義’라고 부른다고 설명하였다.

袁毓林(2012)에서 ‘差’류 동사(差, 欠, 少, 亏, 缺少, 缺乏, 短缺, 欠缺, 殘缺, 不足, 缺席, 失敗 등) 어휘적 의미 내에 모두 다 부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유형의 동사들은 자신 내부에 있는 함축적(隱性)부정 의미가 외부에 있는 부정부사(沒/不)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결국 내외 두 가지 부정의미가 서로 상쇄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差一點’은 함축적(隱性)부정형 부사라고 밝힌 바가 있다. 예를 들면, ‘不差, 不欠’은 결국 ‘夠, 有’ 등 긍정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不缺少, 不缺乏’도 마찬가지로 ‘有, 具備’라는 긍정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논자는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문제점을 찾아내 보다 객관적이고 간편한 관점을 내세워 보겠다.

2.2 기존 이론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朱德熙(1959/1980), 呂叔湘(1999), 沈家煊(1987) 등에서도 이러한 비대칭양상에 대해 모두 다 화자의 심리적 ‘企望’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문1)에서의 ‘差一點(沒₁)’ 후행하는 VP성분이 모두 다 화자가 바라고 있는 행위들이다. 이 중에서 ‘差一點’만 들어 있는 통사적 긍정형 표현구조가 실제로 나타내는 의미는 괄호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명제적 부정 의미이고, ‘差一點沒₁’이 들어 있는 통사적 부정형 표현구조에서는 실제 나타나고 있는 의미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이 명제적 긍정 의미이며 그 양상이 서로 대칭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朱德熙(1959/1980), 呂叔湘(1999), 沈家煊(1987) 등은 화자의 심리적인 ‘企望’ 여부를 내세워 설명하였다. 즉 예문1) 중의 VP성분 ‘及格, 買着, 趕上, 修好’ 등은 모두 다 화자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성 부사 ‘差一點’과 통사적 부정 부사 ‘沒₁’이 동시에 부정 기능을 발휘하여 결국 명제를 긍정 의미로 바꿔버린 것이다. 반대로 예문 2) 중의 VP성분 ‘死了, 輸了, 碎了, 摔交’와 같이 모두 다 화자가 바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差一點沒₂’와 결합하여 나타내는 의미는 실제로 부정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 ‘沒’은 더 이상 부정부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잉여(冗余/羨余) 성분인 ‘沒₂’로 남아 그 명제적 부정 의미가 오직 ‘差一點’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아래 예문3)에 대해 이상 ‘企望說’ 관점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 3) ...我卡捷琳娜·伊万諾芙娜的爸爸是位上校, 差点儿沒當上省長...

(...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아버지가 상교란 말이야, 하마터면 성장 될 뻔했어...(못됨))

예문3) 문장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VP성분 ‘當省長’은 화자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企望’ 여부 판단할 때 우리가 이것이 ‘企望’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企望說’ 관점에 따라 예문3)에서의 주인공 아버지가 ‘省長’이어야 맞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상 여전히 ‘上校’신분이라는 것을 문맥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래 예문 4)~6)도 비슷한 예문이다.

- 4) 這一下差一點沒把張維氣死, 氣得他直瞪着眼... [趙樹理 <張來興>
(장웨이야가 하마터면 화가 나 죽을 뻔했어, 눈을 부릅뜨고 노려볼 정도로 화가 나서 ...)
- 5) 你, 在朝鮮戰場是個怕死鬼! 我差点兒沒有槍斃你!
[丁隆炎 <最後的年月>
(너 말이야, (한국전쟁) 전쟁터에서 하도 겁쟁이라서 내가 너를 총으로 죽일 뻔했어!)
- 6) 大媽往外一指, 我一看, 正是我媳婦來了, 當時高興得我啊, 差點兒沒翻倆跟頭, 一个箭步就冲過去了.(常更新<浪子回頭>
(아주머니가 밖을 향해 가리키더니 내가 딱 보니까 마침 우리 색시가 온 거야, 당시 내가 너무 기뻐서 텀블링을 할 뻔했네, 달려갔어)
[石毓智 1993: 13]

예문 4)에서 ‘張維’는 화자의 원수이고 ‘把張維氣死’는 화자가 바라는(企望) 것이기 때문에 이상 관점대로 ‘差一點沒把張維氣死’표현에 실제로 나타나는 의미가 ‘張維氣死了’ 즉 명제적 긍정 의미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예문 4) 문장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張維’는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張維沒死)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 5)와 6)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바라는 상황 ‘槍斃你, 翻倆跟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의미는 모두 다 명제적 부정 의미 즉 ‘沒槍斃你, 沒翻倆跟頭’이라는 것을 문맥 통해서 알 수 있다. 예문 5)에서는 화자가 ‘你’를 향해 매우 화가 나서 총으로 죽이고 싶은 상황 즉 화자가 ‘企望’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예문 6)에서는 화자가 텀블링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매우 기쁜 상황 역시 화자가 ‘企望’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朱德熙(1959/1980)

등의 화자 '企望'說은 이상 예문 4)~6) '差一點沒₂+VP' 표현에서 화자가 심리적으로 '企望'인 경우임에도 VP가 실제로 긍정 의미가 아니라 명제적 부정 의미라는 점이 그리 객관적이면서도 설득력이 강한 이론이라고 볼 수 없다.⁴⁾

石毓智(1993)에서는 화자의 심리적 '企望' 여부를 통해 '差一點(沒)+VP'구조의 의미양상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 보다 문장 내 동사성분의 의미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욱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주로 '差一點(沒)'성분 뒤에 나오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가 '긍정(積極)'적이냐, '부정(消極)'적이냐에 따라 VP의 명제적 의미가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石毓智(1993)에서 제시한 VP성분의 '긍정積極' 또는 '부정消極'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결국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朱德熙(1959)등 학자들의 '企望'說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아래 예문6)은 바로 石毓智(1993)에서 VP가 '긍정積極'적 성분으로 간주하여 열거한 예문이다.

6) 差點兒沒見着=見着了

[石毓智 1993: 15]

예문 6)에서의 VP '見着'이 '긍정積極'적이냐 '부정消極'적이냐의 판단은 화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본다. 만약 화자가 누군가를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경우 이 '見着'은 '부정消極'적 성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상 예문 6)을 아래와 같이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7) 差点兒沒見着=沒見着

이와 같이 동사 '見'은 중성의 의미를 지니므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VP의 명제적 의미가 부정이냐 긍정이냐 판단하게 된다. '見着'이 비록 중립성

4) 石毓智(1992: 12-13)를 참조한 것이다.

을 지닌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부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의 주장대로 긍정의미의 동사로 분류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다만 이러한 어휘적 긍정성(積極), 부정성(消極)이 불명확한 중립성 동사들이 나타내는 명제의 중의성에 대해 설득력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즉 화자의 심리활동과 관련된 화용적 의미를 배제한 어휘 자체의 보편적 의미를 ‘긍정積極’ 또는 ‘부정消極’ 이분법으로 나누어 명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이 그리 객관적이지 않다고 본다.

- 8) 猛一聽‘辛苦了’這三个字，林雁冬差点兒沒樂出來...
 (‘수고 했어’ 이 말을(三个字)을 막상 듣자하니, 린이안동이 하마터면 웃음이 나올 뻔했어...)
 這位王爺瞧着他們這份德行，差一點沒笑出聲來。
 (이분 나리께서 그들 꼴을 보더니, 하마터면 웃음소리가 날 뻔했다.)
 菲利浦好不容易才克制住自己，差一點沒當場握住她的手熱吻起來。
 (필립은 간신히 자신(감정)을 억눌러 냈는데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뜨겁게 키스할 뻔 했다.)

[CCL 코퍼스]

예문 8)에서 ‘差一點沒₂’ 후행하는 VP성분 ‘樂出來, 笑出聲來, 熱吻起來’ 즉 ‘웃다, 입맞춤하다’ 등 행위들은 기분이 좋거나 애정 감정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생리적인 행위이므로 이를 이상 石毓智(1993)가 언급한 ‘積極’적 성분에 귀납시키는 것이 적절하겠다. 따라서 예문 8) 표현구조가 실제로 나타나는 명제적 의미가 긍정이어야 하는데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역시 모두 다 명제적 부정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 여러 학자들에 의해 내세운 ‘企望’ 또는 ‘積極/消極’ 說은 매우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지만 하나 이 근거에 맞지 않은 특수한 예문들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또한 단지 어감에 의존하는 매우 주관적인 분석 방법이므로 객관적인 근거 이론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본다.⁵⁾

5) 朱德熙(1980: 191-192)에서 이와 같이 중립적인 태도인 경우 즉, 화자에게는 어떤 상황

이상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董爲光(2001)에서는 '趨向'이란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趨向'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 즉 '偶發趨向', 또 하나는 행위자에 의한 주도적 행위가 사건 완료와 미완료 사이에 처해 있는 경우 즉 '成果趨向'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0) a. 汽車差一點沒掉下懸崖.
(차가 하마터면 낭떠러지로 추락할 뻔했다.)
b. 她差一點沒說成這門親事.
(그녀가 하마터면 이 혼담을 성사 못 시킬 뻔했다/ 성사 시킬 뻔했다.)

(董爲光 2001: 35)

예문 10a)에서 서술어 '掉下'는 전형적인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며 화자가 이 사건에 대해 '추락/하강하다'의 단일 방향만 느끼게 되므로 이를 한 가지 방향만 가지고 있는 '偶發趨向'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10a)의 명제적 의미는 부정 의미만 있는 것이고, 10b)에서의 '說親'은 행위자가 주도적으로 실행하려고 하고 또 사건 실현에 대한 기대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說成'과 '沒說成' 즉 완료와 미완료 두 가지 가능성 또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자 '說成'은 문장의 명제적 의미가 긍정의미인 경우에는 부정성 부사 '差一點'과 부정부사 '沒'이 동시에 후행하는 VP를 부정하여 결국 명제적 긍정의미로

에 대한 그 '企望' 여부가 개외치 않을 때 '差一點沒+VP' 표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설명하였다.

예) 我差一點沒跟他結婚.

1. 화자가 그 사람과 결혼을 원할 때 -> 결혼 하였음.
2. 화자가 그 사람과 결혼을 원하지 않을 때 -> 결혼 하지 않았음.
3. 화자가 그 사람과 결혼을 크게 개외치 않을 때 -> 결혼 하지 않았음.

그는 이러한 중립적인 '差一點沒+VP' 표현은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에 따라 의미가 세 개로 분리되어 이를 중의성 구문이라고만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장의 구조 자체가 의미와 1:1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企望' 여부 즉 화자의 태도나 의향과 관련된 요소들은 언어의 외적인(extralinguistic)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인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差一點沒+VP' 문장구조와 그 명제적 의미를 작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본다.

된 것이다. 문장10b)의 명제적 의미가 부정 의미인 경우는 ‘差一點沒’ 중의 이 ‘沒₂’성분은 부정부사의 역할을 더 이상 못하고 잉여(冗余/羨余) 성분만 남아 있어 문장 내 부정성 부사 ‘差一點’의 작용으로 인해 명제적 의미가 부정 의미 즉 ‘沒說成’라는 의미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명제적 의미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다 존재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董爲光(2001)에서 ‘差一點(沒)’표현구조는 후행하는 VP성분의 ‘趨向⁶⁾과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또 ‘偶發趨向과 ‘成果趨向’ 두 가지가 있으며 전자는 단일방향(單向) 명제적 부정의미만 가지고 있고, 후자는 양방향(雙向) 성질인 명제적 부정과 긍정 의미 두 가지 경우를 다 가진다고 주장하였다.⁷⁾

이상 관점대로 아래 예문을 살펴보겠다.

- 11) a. 敵人差一點沒進包圍圈。(進了)
(적들이 하마터면 (아군)포위망 안으로 못 들어올 뻔했다. (들어감))

6) 董爲光(2001: 38)에서 ‘趨向’ 이론으로 ‘差一點DJ(VP)’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긍정형 구문 (肯定形式)	부정형 구문 (否定形式)
양방향 (雙向趨向)	主動實施 A-1 差點兒買着了(沒買着)	B-1 差點兒沒買着(買着了)
	‘有利’ 豫期 A-2 敵人差點兒進了包圍圈(沒進)	B-2 敵人差點兒沒進包圍圈(進了)
단일방향 (單向趨向)	‘有害’ 評價 C-1 敵人差點兒發現了我(沒發現)	D-1 (羨余) 敵人差點兒沒發現我(沒發現)
	‘有害’ 偶發事態 C-2 差點兒得了感冒(沒得)	D-2 (羨余) 差點兒沒得感冒(沒得)
	良性 偶發事態 C-3 差點兒樂得他跳起來(沒跳)	D-3 (羨余) 差點兒沒樂得他跳起來(沒跳)
	中性 偶發行爲 C-4 剛才差點兒去看電影(沒去)	D-4 (羨余) 剛才差點兒沒去看電影(沒去)
	錯誤事態 C-5 差點兒吃錯了藥(沒吃錯)	D-5 差點兒沒吃錯藥(沒吃錯)
		錯誤事態 (E-1) 差點兒沒按時吃藥(按時吃了)

7) 董爲光(2001: 35)을 참조한 것이다.

b. 敵人差一點沒發現我。(沒發現)

(적들이 하나터면 나를 발견할 뻔했어. (발견 못함))

〔董爲光 2001: 38〕

11a)와 11b)를 비교해봤을 때 주어와 모두 다 똑같은 '敵人'인 '差一點沒+VP'구문임에도 불구하고 명제적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양상이 보인다. 董爲光(2001)에서는 예문 11a)는 '成果趨向'이며 화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VP성분 '進包圍圈'은 우발적인 사태가 아닌 미리 계획해 두고 또 이것이 바라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명제적 긍정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문 11b)는 화자의 관점에서는 '發現'이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태 '偶發趨向'으로 간주하여 명제적 부정의 의미('沒發現')라고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11a)에서의 VP성분 '進+包圍圈' 행위가 전부 다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라고 간주하기 힘든 것은 '包圍圈'만 화자가 미리 계획해둔 것이지 '敵人'이 결코 그 안에 진입할 것인지의 여부까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進包圍圈'라는 행위결과가 우발적 사태('偶發趨向')인 셈인데 명제적 부정의미인 '沒進'이 맞는 것이다. 11b)에서 사건 행위자인 '敵人'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측 적인 '我'를 수색하는 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전환되면서 '發現'이라는 행위는 결코 우발적인 사태('偶發趨向')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논리에 따라 '成果趨向'이어야 하며 '敵人'관점에서 '我'를 발견해내는 것이 바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따라서 명제적 긍정의 의미가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趨向'이 VP성분의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작의 착수에만 적용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화자와 행위자의 관점이 다름에 따라 명제적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董爲光(2001)은 '趨向'이라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여 그중 '偶發趨向'이라는 관점이 이상 '企望' 여부, '積極/消極'에 의해 설명할 수 없는 사례(예문 3)~6), 예문 8))들이 왜 한 가지 명제적 부정 의미만 가지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충분한 근거로 될 수 있으나, '趨向'이 VP성분 전체를 겨누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의 행위 또는 행위결과 중 어느 하나만 겨누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 그가 주장한 '趨向'이라는 새로운 관점도 역시 문제점이 있다

고 본다.

다음으로는 袁毓林(2013)에서 ‘差一點沒₂+VP’ 구문에서 명제적 부정의미가 존재하는 원인은 단순히 화자가 표현하는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 내용과 표현 방식 양자 사이의 결합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화자의 뉘앙스(語氣)의 [긍정(肯定) 또는 부정(否定)], 화자의 심리적 기대의 [바람(希望) 또는 非바람(不希望)], 그리고 화자가 사용한 어휘 가치의 [적극성(積極) 또는 소극성(消極)] 및 화자가 마지막으로 내린 주관적 평가의 [긍정적임(正面) 또는 부정적임(負面)] 등 여러 가지 의미요소 사이의 결합관계 및 도출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부정성 부사 ‘差一點’을 함축성(隱性) 부정 부사로 설정하여 후행하는 VP성분이 명제적 긍정 의미인지 부정 의미인지, 발생 사건이 화자가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바라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되면서 화자의 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긍정적(正面/慶幸)인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負面)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 요소들이 서로 결합함에 있어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⁸⁾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VP성분에 대한 화자의 ‘企望’ 여부 및 VP가 의미적으로 ‘消極’ 또는 ‘積極’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애매모호하며 화자의 뉘앙스에 대한 청자의 판단도 청자마다 다르기에 이것이 또한 객관적인 분석방법으로 간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상 여러 학자들이 명제적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差一點+VP’, 명제적 부정 의미를 가질 때의 ‘差一點沒₂+VP’ 이 두 표현구조의 명제적 의미의 비대칭

8) 袁毓林(2013: 56)에서 이상 내용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열거하였다.

평가(評價)	바람(希望)	非바람(不希望)
[긍정적(正面) _z , 부정적(負面)-z]	[적극성 어휘(積極詞語) (y)]	[소극성 어휘(消極嘔語) (-y)]
명제적 긍정 의미 형식	A: 差一點VP	B: 差一點VP
[단일 부정: ‘差一點’은 함축적(隱性) 부정 (-x)]	‘差一點考上北大’ (沒考上) (-x) × (y) → (-z 아쉬움(遺憾))	‘差一點摔斷大腿’ (沒摔斷) (-x) × (-y) → (z 다행(慶幸))
명제적 부정 의미 형식	C: 差一點沒VP	D: *差一點沒VP
[이중 부정: 함축적 부정(-x) × 부정부사의 부정 ‘沒’ (-y)]	‘差一點沒考上北大’ (考上了) (-x) × (-y) → (z 다행(慶幸))	*‘差一點沒摔斷大腿’ (摔斷了) (-x) × (-y) → (-z 아쉬움(遺憾))

양상에 대해 논의한 것을 종합해 보면 의미면에서 대부분 화자의 '企望' 여부를 기반으로 관점을 내세워 비대칭 원인을 밝히려고 하였다. 그리고 통사면에서는 '差一點'은 부정적 성질을 가진 부정성 부사로 간주하여 이로 인해 '差一點+VP' 표현 구조는 명제적으로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이고, '差一點+沒₁+VP' 표현 구조에서 부정성 부사 "差一點과 부정부사 '沒'가 결합한 후 즉 이중 부정 결합과정을 거쳐 결국 명제적으로 긍정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인 것이며, 마지막으로 또 다른 신분인 '差一點沒₂+VP'의 표현 구조에서의 '沒'은 통사적 부정부사 기능을 잃어 잉여(冗羨餘)부정 기능만 할 수 있는 성분 '沒₂로 남아 이런 경우에는 전자와 다르게 명제적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논자는 이상 논의된 관점과 다르게 특히 '企望'說에 비롯된 '差一點沒' 후행하는 어휘를 '積極/消極', '正面/負面', '偶發趨向/成果趨向' 등 여러 가지 의미요소로 구분하여 해석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하며 특히 '差一點(沒)' 뒤에 후행하는 VP성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분석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VP성분 내의 동사 의미와 동작 결과 두 개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다. 전자는 주로 행위자 또는 동작자에 대한 동작의 '의지성' 자질⁹⁾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화자가 동작 결과에 대한 '예상성' 자질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동작 결과에 대한 예상성은 구체적으로 '동작 실현완료'에 대한 예상을 가리키는 것이며 또한 화자가 그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도하거나 기대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差一點沒病死(沒死)'에서의 동사 '病'은 동작자가 뜻대로 제어할 수 없는 비의지동사이고 동작 결과인 '死'에 대해서도 화자가 적극적으로 의도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예상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예문은 두 가지 자질을 모두 갖추지 않았으므로([-의지성], [-예상성]) 명제적 부정의미

9) 劉月華 등/김현철 등 譯(1982/2005: 173)에서 동작을 하는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의지동작동사라고 부르며 이가 나타내는 동작은 보통 동작자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說, 學, 買, 打, 教' 등이다. 반대로 동작자가 제어할 수 없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비의지동작동사라고 하며 예를 들면 '病, 死, 知道, 漏' 등이 있다.

를 가진 ‘差一點沒2+VP’ 형식이다.

예문 ‘差一点沒赶上(赶上了)’에서 동사 ‘趕’은 전형적인 의지동사이고 동작 결과인 ‘赶上’에 대해서도 화자가 적극적으로 기대하였으므로 예상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는 두 가지 자질을 모두 갖추었으므로([+의지성], [+예상성]) 명제적 긍정의미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어서 예문 ‘差点兒沒吐出來(沒吐出來)’에서 동사 ‘吐’는 의지동사이고 동작 결과인 ‘吐出來’에 대해서는 화자가 예상하지 않았으므로¹⁰⁾ 의지성 자질만 가진([+의지성], [-예상성]) 명제적 부정의미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논자가 내세운 [의지성]과 [예상성] 자질 여부에 근거해 새로운 방법으로 앞서 언급했던 예문들에 대해 다시 분석해 보겠다.

우선 ‘差一點沒+VP’이 명제적 부정 의미를 가진 예문을 다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2) 差一點沒死(沒死)
 差一點沒輸(沒輸)
 差一點沒打碎(沒打碎)
 差一點沒摔跤(沒摔跤)

(예문2) 재인용)

예문12)중의 VP성분 내 동사 ‘死, 輸, 打碎, 摔¹¹⁾(跤)’ 등은 모두 다 비의지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작 실현결과인 ‘死, 輸, 碎, 摔跤’에 대해서도 화자가 적극적으로 의도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예상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예문12)는 ‘의지성’과 ‘예상성’ 이 두 가지 자질을 다 갖추지 않아

10) 이 예문은 CCL 말뭉치에서 인용한 예문이며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자가 의도적으로 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胃속에 마치 고양이 한 마리가 속을 굶듯이 괴로워 자신도 모르게 토할 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예문) 慶玉把一杯咖啡喝完, 面潮心慌, 肚里像鑽了个猫挖抓得差点沒吐出來。(沒吐出來)

11) 중국어 동사 摔은 동작동사로서 ‘내던지다, 털다, 부서지다, 넘어지다, 자빠지다’ 등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문 12)에서는 ‘넘어지다, 자빠지다’와 같은 비의지동작동사로 간주한다.

명제적 부정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다음 예문 13) 예문14)와 같은 VP성분의 동사 '喘, 托, 考(級格), 買, 趕, 修' 등은 모두 다 화자가 주도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행위이면서도 제어할 수 있는 동작이므로 동사적 의미가 '의지성'이 있는 것이고, VP성분의 동작결과에 대해 또한 동작 실현완료로 예상한 것으로 '예상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

- 13) 差一點沒喘過氣來 (喘氣了)
 (하마터면 숨을 못 돌릴 뻔했다. (호흡하고 있음))
 差一點沒托穩 (托穩了)
 (하마터면 제대로 못 들어 떨어트릴 뻔했다. (제대로 들었음))
 (CCL 코퍼스)

- 14) 差一點沒及格 (及格了)
 差一點沒買着 (買着了)
 差一點沒趕上 (趕上了)
 差一點沒修好 (修好了)
 (예문1) 재인용)

예문 13)같은 경우 호흡하면서 당연히 숨 돌리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완료 결과를 예상한 것이며 그리고 무언가를 안정되게 받치려고 잡았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완료 결과를 예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지성'과 '예상성'을 동시에 갖추었으므로 명제적 긍정의미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문 14)는 동작 실현 결과에 대해 '합격함, 사냈음, 제시간에 도착함, 수리됨' 이와 같은 동작 실현완료 결과를 예상하였으며 또한 이런 결과가 이루어내려고 주도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역시 동작의 '의지성'과 동작 결과에 대한 '예상성'을 동시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명제적 긍정의미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논의하는 동작 결과에 대한 '예상성' 여부가 결국 '企望'說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어 회의감 들 수 있겠지만 논자는 양자가 엄밀히 서로 다른 기준점이라고 본다. 우선 아래 예문을 살펴보겠다.

- 15) a. 都說他不是讀書的料，可人家不但讀了本科，碩士，還差點兒沒考上博士。(沒考上)
 (모두 다 그가 공부할 사람 아니라고 말 했었다, 그러나 그는 학부, 석사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박사입학까지 합격할 뻔했다. (합격 못함))
- b. ...我卡捷琳娜·伊万諾芙娜的爸爸是位上校，差点儿沒當上省長...
 (...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아버지가 상교란 말이야, 하마터면 상장 될 뻔했어...(못됨))

[CCL 코퍼스]

예문15a)에서 VP성분 ‘考上博士’라는 결과는 행위자가 바라는 것이며 화자 관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바람이므로 이상 제시된 화자의 심리활동과 관련된 ‘企望’說이나 ‘消極/積極’이론에 적용하면 명제적 긍정의미가 나타나야지만 실제로 명제적 부정의미가 나타나고 있다. ‘考上博士’라는 결과가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실현 완료한 결과에 대해서는 화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동작 완료결과에 대해 의도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전혀 예상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이런 부분에서 논자가 제시한 화자가 동작 실현 완료결과에 대한 ‘예상성’ 여부가 결국 ‘企望’說과 엄밀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그리고 동작 행위 ‘考’는 행위자가 제어할 수 있는 의지 동작동사이지만 ‘합격함’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의지성’만 있고 ‘예상성’은 없는 것으로 보아 명제적 부정의미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¹³⁾ 마찬가지로 예문 15b)(예문3)재인용)도 VP의 동사 ‘當’은 의지동작동사이므로 ‘의지성’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VP성분의 실현 완료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성’이 없다고

12)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데 즉 화자가 ‘대부분 사람들’과 결코 같은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화자가 어떠한 태도든 간에 예문 15a)와 같이 표현했다는 것은 곧 바로 화자가 대부분 사람들과 동일한 시각에서 ‘他不是讀書的料’를 가정하고 발화한 것이므로 예상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13) 만약 예문 15a)에서의 화자나 ‘대부분사람들’이 모두 ‘합격함’을 기대하거나 예상을 하였다면 ‘差一点沒考上博士’의 명제적 의미는 긍정의미 ‘考上博士’가 되겠다(〔+의지성〕〔+예상성〕). 이와 같은 경우 전자와 후자는 서로 다른 화용적 의미가 보이게 된다.

본다. 왜냐하면 문장 내 주어인 '카메리나'가 본인 아버지가 '上校' 신분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자부심이 느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나 군부대집단에서 벗어나 다른 권력집단에 속하는 '省長'이라는 계급에 대해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능성이 크고 또한 그런 결과를 이루어내기 힘들 것이라고도 잠재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예문 15b)도 역시 '의지성' 자질만 있고 '예상성' 자질이 부족하여 명제적 부정의미가 나타나는 것이다.

- 11) a. 敵人差一點沒進包圍圈。(進了)
 b. 敵人差一點沒發現我。(沒發現)

예문 11a)에서 VP성분 '進包圍圈'이라는 실현완료 결과에 대해 화자가 예상¹⁴⁾하고 있는 것이고, 동사 '進'은 또한 의지동작동사이므로 명제적 긍정의미가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11b)에 대해서 VP성분 중의 동사 '發現'은 일반 활동 동사에 비해 동작 의지성이 떨어지므로 '知道'와 같은 비의지동작동사로 간주된다. '發現我'라는 동작의 실현완료 결과에 대해서는 행위자('敵人')이 이런 결과에 대해 기대하거나 예상하고 있었지만 화자가 이에 대해 전혀 예상 못할 수도 있고 예상할 수도 있다. 즉 행위자인 '敵人'이 화자 본인을 수색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되었다면 은피하는 과정에서도 '發現我'라는 동작의 실현완료 결과에 대해 예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예문 11b)는 '의지성'이 없고 '예상성'만 있는 명제적 부정의미(沒發現)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화자가 행위자인 '敵人'이 본인을 수색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 못하였다면 '의지성' 자질도 없고 '예상성' 자질도 없는 역시 명제적 부정

14) 예문 11a) 행위자 '敵人'입장에서는 동작 '進'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지만, 후행하는 VP성분 즉 행위의 실현완료 결과에 초점을 맞춰봤을 때 포위선의 존재 여부는 행위자인 '敵人'으로서 객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VP성분의 실현완료 결과 '進包圍圈'은 예상성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 명제적 의미가 부정 의미 '沒進'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앞서 '의지성'과 '예상성' 자질을 제시하면서 그 중 '예상성'은 화자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문장 주어 '我'로 바꾸면 명제적 부정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즉 '我差一點沒進包圍圈'이 실제로 나타내는 결과의미는 '沒進'이다.

의미로 간주할 수 있겠다.

5) 你, 在朝鮮戰場是個怕死鬼! 我差點兒沒有槍斃你!

[丁隆炎 <最後的年月>]

(너 말이야, (한국전쟁) 전쟁터에서 하도 겁쟁이라서 내가 너를 총으로
죽일 뻔했어! (죽이지 않음) [石毓智 1993: 13]

앞서 제시한 예문 5)를 ‘의지성’과 ‘예상성’에 근거하여 다시 분석하자면 VP 성분 중 동사 ‘槍斃’는 동작자가 제어할 수 있는 의지동작동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VP성분의 완료결과에 대해 즉 ‘槍斃你’라는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행위자가 이토록 전우를 총으로 쏘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은 전쟁터에서 발생한 상황이 전제 조건으로 이미 명시하였기 때문에 즉 ‘겁쟁이’라고는 전혀 예상 못하였으므로 동작의 실현 완료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예문 5)에서 VP성분 ‘槍斃你’가 다만 ‘消極’적 성분이라 명제적 부정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는 것 보다 동사적 ‘의지성’이 있지만 동작 완료 결과에 대한 ‘예상성’이 없음으로 인해 명제적 부정의미를 가지게 된 문장이라는 관점이 더 구체적이고 합리하다고 본다.

6) 大媽往外一指, 我一看, 正是我媳婦來了, 當時高興得我啊, 差點兒沒翻兩跟頭, 一個箭步就沖過去了.

[常更新 <浪子回頭>]

(아주머니가 밖을 향해 가리키더니 내가 딱 보니까 마침 우리 섹시가 온 거야, 당시 내가 너무 기뻐서 텀블링을 할 뻔했네, 달려갔어)

[石毓智 1993: 13]

이미 제시된 예문6)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해 봤을 때 VP성분 내 동사 ‘翻(跟頭)’은 행위자가 그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의지동작동사이므로 동사적 ‘의지성’이 있는 것이고,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자가 자신의 아내가 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으므로 예상 밖으로 찾아온 기쁨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翻兩跟頭...’ 행위를 빌려 자신의 놀랍고 흥

분된 심리활동을 묘사하는 것이므로 이 행위를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 못한 것이다. 따라서 예문 6)도 동사적 '의지성'은 있지만 동작 실현완료 결과에 대한 '예상성'이 없기 때문에 명제적 부정의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8) a. 猛一聽“辛苦了”這三个字, 林雁冬差点兒沒樂出來...(沒樂出來)
(‘수고했어’ 이 말을(三个字)을 막상 듣자하니, 린이안동이 하마터면 웃음이 나올 뻔했어...(웃지 않았음))
- b. 這位王爺瞧着他們這份德行, 差一點沒笑出聲來.(沒笑出聲來)
(이분 나리께서 그들 꼴을 보더니, 하마터면 웃음소리가 날 뻔했다. (웃음소리 내지 않았음))
- c. 菲利普好不容易才克制住自己, 差一點沒當場握住她的手熱吻起來.(沒當場握住她的手熱吻起來)
(필립은 간신히 자신(감정)을 억눌러 냈는데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뜨겁게 키스할 뻔 했다.(키스하지 않았음))
- [CCL 코퍼스]

그리고 예문 8c)가 어찌하여 명제적 부정의미가 반영된 것도 예문6)과 같은 경우이며 동사적 '의지성'이 있지만 동작의 실현완료 결과에 대한 '예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제적 부정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문 8a, b)도 8c)와 마찬가지로 명제적 부정의미가 보인 문장이며 문맥을 통해 판단할 수 있듯이 화자의 VP성분 동작의 실현완료에 대한 '예상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순간적으로 '聽' 그리고 '瞧'하기 전에는 행위자가 웃을 것이라고 예상 못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문8a)와 8b)도 동사적 '의지성' 자질만 있고¹⁵⁾ 동작의 실현완료 결과에 대한 '예상성' 자질이 없는 명제적부정의미를 나타낸 문장이다.

이상 종합해 보면 논자는 '差一點沒+VP' 형식의 명제적 긍정/부정 의미를 판별하는 기준을 행위자 동작의 '의지성' 여부와 화자가 동작의 실현완료 결과에 대한 '예상성' 여부라는 새로운 기준치를 내세워 분석해 보았다. 이는 화자

15) 동사 '樂/笑'가 의지동작동사 될 수도 있고 비의지동작동사가 될 수도 있지만 예문 8a, b)에서의 VP의 실현완료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성'이 없기 때문에 동사적 '의지성' 자질의 존재 여부가 똑같은 명제적 의미를 나타낸다.

의 사건을 바라보는 심리적인 요소(예상성)과 VP성분 내 동사 자체 가지고 있는 의미자질(의지성)을 결합시켜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므로 이 판별 기준은 다만 어감에 의존한 ‘企望’ 여부, ‘積極/消極’ 여부를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관점보다 더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상 열거된 예문들을 ‘의지성’, ‘예상성’ 자질 여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표로 열거해보겠다.

<표1> 자질 여부에 근거한 명제적 의미 양상

자질 여부	명제적 긍정의미	명제적 부정의미
[+의지성] [+예상성]	差一点沒(考)及格 (及格了) 差一点沒買着 (買着了) 差點兒沒見着 (見着了) 差一点沒赶上 (赶上了) 差一點沒喘過氣來 (喘氣了) 差一点沒修好 (修好了) 差一點沒托穩 (托穩了) 差一點沒說成這門親事 (說成了) 敵人差一點沒進包圍圈 (進了)	
[-의지성] [-예상성]		差一點沒死 / 氣死 (沒死) 差一點沒輸 (沒輸) 差一點沒打碎 (沒打碎) 差一點沒摔跤 (沒摔跤) 汽車差一點沒掉下懸崖 (沒掉下)
[-의지성] [+예상성]		敵人差一點沒發現我 (沒發現)
[+의지성] [-예상성]		(當時高興得我啊) 差點兒沒翻兩跟頭 (沒翻兩跟頭) (我村趙彬那·伊孛諾英聯的爸爸是位上校) 差点儿沒當上省長 (沒當上) 敵人差一點沒發現我 (沒發現) (菲利普好不容易才克制住自己,) 差一點沒當場握住她的手熱吻起來。 (沒當場握住她的手熱吻起來) 差点兒沒吐出來 (沒吐出來) 差一點沒說成這門親事 (沒說成) 差点兒沒樂出來 [+의지성] (沒樂出來) (都說他不是讀書的料, 可人家不但讀了本科, 碩士)

		還差點兒沒考上博士。(沒考上)
		(你, 在朝鮮戰場是個怕死鬼!)
		我差點兒沒槍斃你。(沒槍斃你)

2.3 '沒₂'의 잉여(冗餘/羨餘)부정부사 여부에 관하여

명제적 부정 의미를 가지는 '差一點沒₂+VP'문장 내의 '沒₂'에 대하여 앞서 살펴 본 학자들은 모두다 잉여부정부사로 간주하였다. 그렇다면 통사적이든 의미론적이든 아무 기능도 하지 않은 즉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沒₂'가 왜 생기는 것인지, 언어경제성원리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沒₂'가 없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고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논자는 CCL 코퍼스를 통해 현대중국어 '差一點沒+VP' 표현방식인 예문 137개를 추출해내어 조사한 결과 그 중 실제로 명제적 부정 의미로 쓰이고 있는 개수가 무려 137개중 134개에 달해 약 98%가 명제적 부정의미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냈다. 즉 '差一點沒+VP' 표현구조는 사실상 거의 다 명제적 부정 의미로만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롯되어 소위 잉여부정 부사라고 하는 '沒₂'가 과연 아무런 문법적 기능도 하지 않고 오직 잉여성만 존재하는 성분인지에 대해 다소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

呂叔湘(1999: 357)에서 부정부사 '沒₁'은 이미 발생한 동작 또는 상태를 부정하는 성분으로서 완료상표기인 '了'와 의미상 모순되므로 공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사면에서 부정부사 '沒₁'과 후행하는 VP성분이 분리할 수 없으며 '沒+V' 표현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呂叔湘 1999: 383).

그렇지만 아래 예문 16)에서 보듯이 이때 '沒'과 '了'의 공기현상이 실제로 존재 가능한 것이고 또 문법적으로 알맞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16) 差一點沒醜了臉。(沒醜臉)
 (하마터면 반목할 뻔 했다. (반목하지 않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沒₂’는 통사적인 면에서 부정부사와 거리가 먼 성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잉여성 성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¹⁶⁾

아래 예문 17)을 살펴보면 ‘沒+V’ 결합구조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순에 대한 제약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7) a. 差點兒沒定了親。(沒定親)
 (하마터면 약혼 할 뻔했어. (약혼하지 않음))
 - b. 差點兒親都定了。
 (하마터면 약혼까지 할 뻔했어. (약혼하지 않음))
 - c. 差點兒沒親都定了。
 (하마터면 약혼까지 할 뻔했어. (약혼하지 않음))
- [楊子 2017: 34]

예문 17a)는 ‘差一點沒₂+VP’구조 표현이고 17b)와 17c)는 17a)에 의해 변형된 구조이다. 17b)에서의 VP성분 중 목적어 ‘親’에 초점을 두어 이를 동사 앞으로 전치하는 경우이며 이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는 명제적 부정 의미이다. 그리고 17c)와 같은 표현구조는 일반적인 통사구조에 어긋나는 형식이지만 비문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¹⁷⁾ 여기서의 ‘沒₂’가 명사목적어인 ‘親’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명사가 직접 부정부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이다.

吳庚堂(2008)에서 명제적 부정 의미를 가진 ‘差一點沒₂’와 용법상 똑같은 ‘沒差一點’과 같은 형식도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18) 當時將那女孩子氣得沒差一點就癱瘓在廣州街上。(沒癱瘓)
 (그 때 당시 그 여자아이가 너무 화가 나서 하마터면 광저우거리에서 중풍 들 뻔했다. (중풍이 들지 않음))
- [吳庚堂 2008: 337]

16) 이런 현상에 대해 朱德熙(1980: 190)에서도 예문 ‘差一點沒死了’를 사례로 들면서 이 중 ‘沒’과 ‘了’공기 가능성을 통해 ‘差一點沒₂’에서의 ‘沒₂’는 실제 잉여성 성분이며 일반 통사적 부정부사 ‘沒₁’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17) 楊子(2017: 34)를 참조한 것이다.

吳庚堂(2008:337)에서 '差一點沒₂'와 '沒差一點'은 형식이 다르지만 모두 다 '差一點'에서 파생된 것이며 따라서 양자는 모두 다 명제적 부정 의미를 나타내고 또 내포된 함축의미¹⁸⁾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서로 일치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이상 종합해보면 '沒₂'가 '沒₁'에 비해 통사적 제약이 비교적 느슨하고 심지어 명사와 직접 결합할 수 있으며 또 의미론 차원에서 전자는 부정 의미가 거의 상실 되어 잉여 성분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아래 예문들을 살펴보면 '差一點沒₂'가 통사면에서 '差一點'에 비해 제약적이며 그 결합양상을 또한 살펴보면 '沒₂'가 과연 다만 잉여성 성분인지에 대해 회의감이 들 수 있겠다.¹⁹⁾

- 19) a. 差一點就把這'檢破爛'說成是文化建設中的基礎工程之一。(沒說成)
(하마터면 이 '檢破爛'을 문화건설 내 기초 공정의 일부라고 말할 뻔했다. (말하지 않음))

[CCL 코퍼스]

- b. 差一點把這'檢破爛'說成是文化建設中的基礎工程之一。
(하마터면 이 '檢破爛'를 문화건설 중의 기초 공정의 일부라고 말할 뻔했다. (말하지 않음))
- c. ??差一點沒₂就把這'檢破爛'說成是文化建設中的基礎工程之一.

18) 吳庚堂(2008)에서 말한 함축의미(隱含義)는 沈家煊(1999)에서도 언급하였던 '非P' 의미를 일컫는다(P는 본고에서 사용한 VP성분을 가리킴). '差一點'이 표층구조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VP에 인접함(接近VP)' 그리고 함축된 의미는 'VP가 아님(非VP)'이다. 즉 명제적 부정의미를 함의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19) 이상 예문 19a)는 CCL 코퍼스에서 인용된 예문이며 통사구조를 명확하게 들어내기 위해 나머지 19b~f) 등 예문들은 19a)를 어느 정도 변형시켜 나열한 것이다. 그리고 논자가 '差一點沒₂'만 제시하는 이유는 이를 결합이 굳어진 하나의 부사로 간주한 것이고 이는 '差一點+沒₁'과 전혀 다른 구조로서 후자 '沒₁'은 그의 통사적 의미론적 기능으로 인해 부사 '就'나 동사의 가능보어 '不了'를 수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능보어 '不了'는 '주·객관 조건이 실현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며 특히 이 중의 '了' 자체는 결과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즉 가능보어 '不了'는 결과나 방향과는 무관한 동사보어이다. 그리고 부사 '就(就要)'는 시간부사로 동작행위가 장차 또는 곧 발생할 것임을 나타내는 성분이므로 동작 행위의 발생이나 완성을 부정할 때 쓰이는 일반 통사적 부정부사 '沒₁'과의 공기가 용법상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사 가능보어 '不了'와의 공기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 d. 差一點沒₂把這‘檢破爛’說成是文化建設中的基礎工程之一。
(하마터면 이 ‘檢破爛’를 문화건설 중의 기초 공정의 일부라고 말할 뻔했다. (말하지 않음))
- e. *我沒就把這‘檢破爛’說成是文化建設中的基礎工程之一.
- f. 我沒把這‘檢破爛’說成是文化建設中的基礎工程之一。
(내가 이 ‘檢破爛’를 문화건설 중의 기초 공정의 일부라고 말하지 않았어.)

예문 19)는 ‘差一點+就’, ‘差一點沒₂+就’에서의 ‘沒₂+就’ 공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나열한 문장이다. 19a, b) 두 문장을 비교해보면 부사 ‘差一點’이 부사 ‘就’를 수반하는 여부가 문법적으로 모두 다 수용되지만 19c, d) 두 문장을 비교해보면 ‘差一點沒₂’와 후행하는 ‘就’의 결합이 제약적이므로 정문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본다.²⁰⁾ 그리고 19e, f)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19c)가

20) 예문 19c) ‘??差一點沒₂就把這‘檢破爛’說成是文化建設中的基礎工程之一.’ 비문인 원인은 부사의 어순으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어 이를 ‘??差一點就把這‘檢破爛’說成是文化建設中的基礎工程之一.’ 식으로 순서를 바꾸면 정문이 되어 이는 부사의 어순으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으나 본고는 19c, d)와 20c, d)에서의 ‘差一點沒₂’를 하나의 굳어진 부사로 간주하여 설정한 예문이며 이는 ‘差一點+沒₁’과 전혀 다른 구조로 본다. 그리고 순서를 바꾼 문장이 과연 정문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 a 差點兒就得了感冒. *差點兒就沒得感冒.
- b 差點兒就吃錯了藥. *差點兒就沒吃錯藥.
- c *差點兒按時吃了藥. 差點兒就沒按時吃藥.
- d 差點兒買着了. 差點兒就沒買着.

董為光(2001: 39-40)

예문 a, b)와 예문 c, d)가 대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와 b에서는 ‘差一點就沒’ 문형은 비문이고 반대로 c와 d에서는 정문이다. 부사 ‘差一點’은 의미상 뒤에 있는 VP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接近VP) 의미상 VP를 부정하게 된 것이다. 즉 VP성분을 향해 가고 있으나 이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沒得感冒’와 ‘沒吃錯藥’이 아무런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의미가 없는 일반적인 상태나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반대로 ‘得感冒’와 ‘吃錯藥’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의미가 있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인식되어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부사 ‘差一點’은 ‘沒得感冒’와 ‘沒吃錯藥’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문 a와 b에서는 비문이 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문 19c)의 부사 순서를 바꿔 놓은 예문 ‘??差一點就把這‘檢破爛’說成是文化建設中的基礎工程之一.’의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VP 성분 ‘沒把這‘檢破爛’說成是文化建設中的基礎工程之一’은 일반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통사적으로는 문제없는 구조이지만 의미론면에서는 비문으로 판단된다.

용법상 허용 못한 것은 19e)가 비문이기 때문이다. 즉 '沒₂'가 문법적 기능을 잃은 잉여적인 성분이 아니라 때로는 일반부사와 마찬가지로 통사적 제약도 받는 다는 것이다. 朱德熙(1980)에서 주장하듯이 아무런 기능도 못한 잉여성 성분이라면 예문 19)와 같은 제약이 왜 생기게 된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고는 이런 관점에서 '沒₂'를 단순한 잉여성분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 20) a. 差一點到不了這兒。(到了) [CCL 코퍼스]
 (하마터면 이곳 도착 못할 뻔했다. (도착함))
 b. 差一點到這兒(了)。(沒到)
 (하마터면 이곳 도착할 뻔했다. (도착 못함))
 c. ??差一點沒₂到不了這兒.
 d. 差一點沒₂到這兒。(到了)
 (하마터면 이곳 도착 못할 뻔했다. (도착함))
 e. *沒到不了這兒.
 f. 沒到這兒.
 (이 곳 오지 않았어.)

예문20a)에서의 '差一點' 후행하는 성분 'V+不了'와의 결합은 통사결합구조에 알맞고 화용론적으로 자연스러운 정문 표현형식이다. 그러나 그와 대조되는 20c)에서의 '差一點沒₂'은 'V+不了'와의 결합이 제한적이고 화용론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려운 표현형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또한 예문 20e, f)를 살펴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겠다. 즉 이 현상은 '差一點沒₂' 중의 '沒₂'가 일반 부정부사처럼 어느 정도의 문법적 기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이상 '差一點'과 '差一點沒₂'가 각각 부사 '就' 또는 'V+不了'와 결합했을 때 전자는 문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반대로 후자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沒₂'가 완료표지 '了'와도 수시로 공기할 수 있고 명사성분 '親'과의 공기도 가능한 부정부사가 아니라 다만 문법적 기능을 잃은 잉여성 성분이라면 이와 같이 '就'나 'V+不了'와의 통사적인 공기 제약도 없어야 하는데 이는 마치 일반

통사적 부정부사 ‘沒₁’처럼 실제 의미적 또는 통사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沒₂’에 대해 단순하게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잉여성 성분이라고 보지 않고 분명히 화용론적인 문법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느 정도 통사적 기능도 하고 있는 성분이므로 이를 잉여성 성분이라고 간주하는 자체가 ‘沒₂’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의 ‘差一點’과 ‘沒₂’를 하나의 굳어진 형태 ‘差一點沒₂’로 간주하는 것과 대립된다.

3. 결론

본고는 ‘差一點’과 ‘差一點沒’가 각각 후행하는 VP성분과 결합했을 때 실제 나타난 명제적 의미를 비교해 보면서 ‘差一點沒’은 사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差一點+沒₁’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差一點沒₂’ 형태이다. 양자는 표층 구조에서의 형태가 동일하지만 ‘沒’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명제적 의미가 긍정 또는 부정으로 양립된 것이다.

기존 학자들은 대부분 ‘差一點沒’의 내부 구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후행하는 VP성분이 화자 입장에서 희망한 것인지(‘企望’ 여부) 아니면 긍정적인 것인지(‘消極/積極’)의 여부를 가지고 문장의 명제적 의미의 이중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자는 기존 내세운 ‘企望說’을 기반으로 하여 심리활동면에서 VP성분이 화자 예측가능 한 것인지 즉 동작의 실현완료 결과에 대한 ‘예상성’ 여부, 또 하나는 VP성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동사의 동작성 행위자로서 제어가능한 지 즉 동작의 ‘의지성’ 여부 이 두 가지 자질을 제시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다음 통사적인 면에서 ‘差一點(沒)+VP’를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통사적 현상을 통해 ‘沒₂’는 단순한 잉여성 성분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는 통사적 기능 외에도 분명한 의미, 화용적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면 단순히 잉여성 성분이 아니라면 이 '沒₂'의 정체가 무엇이며 또한 정확히 어떠한 문법적 요소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參考文獻〉

- 江藍生(2008), <概念疊加與構式整合 — 肯定否定不對稱的解釋>, 《中國語文》 第6期.
- _____(2016), <超常組合與語義羨餘>, 《中國語文》 第5期.
- 戴耀晶(2000), <試論現代漢語的否定範疇>, 《語言教學與研究》 第3期.
- _____(2004), <漢語否定句的語義確定性>, 《世界漢語教學》 第1期.
- 董為光(2001), <語言認知心理對差點兒DJ'結構的影響>, 《語言教學與研究》 第3期.
- 劉月華 等(1982), 《實用現代漢語語法》 김현철 등(2005) 譯, 송산출판사.
- 沈家煊(1987), <'差不多'和'差點兒'>, 《中國語文》 第6期.
- _____(1994), <'好不'不對稱用法的語義和語用解釋>, 《中國語文》 第4期.
- _____(1994), <'語法化'研究綜觀>, 《外語教學與研究》 第4期.
- _____(1999), 《不對稱和標記論》, 江西教育出版社.
- 石毓智(1993), <對差點兒類羨餘否定句式的分化>, 《漢語學習》 第3期.
- 朱德熙(1959/1999), <說差一點>, 《朱德熙文集》(第二卷), 商務印書館.
- _____(1980), <漢語句法中的歧義現象>, 《中國語文》 第2期.
- 吳庚堂(2008), <'差點兒沒'及其相關結構的隱涵特性>, 《現代外語》 第4期.
- 袁毓林(2012), <動詞內隱性否定的語義層次和瀾出條件>, 《中國語文》 第2期.
- _____(2013), <'差點兒'中的隱性否定及其語法效應>, 《語言研究》 第1期.
- 殷樹林(2012), <話語標記的性質特徵和定義>, 《外語學刊》 第3期.
- 楊子(2017), <Nn類'差點兒沒VP'新解 — 從差點兒沒的歧義性說起>, 《語言研究》 第3期.
- 侯國金(2008), <冗餘否定的語用條件 — 以差一點+(沒)V, 小心+(別)V爲例>, 《語言教學與研究》 第5期.
- Brinton, L. J. (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s* [M].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Jucker, A. H. Y. Ziv (1998), *Discourse Markers: Description and Theory* [C].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Abstract >

Semanteme and Syntax Analysis of 'chayidian mei + VP'

Lin, Lan Ying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e ambiguity of modern Chinese expression, 'chayidian(me) + VP'. We focus on the semantics of 'chayidian mei +VP' to objectively explain the prediction possibility and manipulation probability to determine the truth-value of propos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peaker based on previous expectation study. From the angle of syntax of the structure, this paper divides 'chayidian mei+VP' into two different types. 'chayidian + mei1 + VP' is one of them, the other one is 'chayidian mei2 + VP'. In our paper 'mei2' is not considered as a pure redundant marker of negation, we think it is a vital discourse maker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grammatical function.

Key words: prediction, manipulation, imperfective, perfective, redundant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 31.	2018. 3. 9.	2018. 3. 12.	2018. 3. 17.	2018. 3. 31.